

호코쿠지 절을 돌아보는 산책 코스

호코쿠지 절의 주요 명소를 느긋하게 즐기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코쿠지 절의 산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면, 이끼 정원 안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끼 정원을 지나면 마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이 꺾어진 곳 너머로 호코쿠지 절을 세상에 널리 알린 대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연못이 흐르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계단을 오르면 본당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참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당으로 향하는 길 왼쪽에는 전통 갈대지붕을 얹은 종루가 있습니다. 그 뒤에 심어진 커다란 은행나무가 종루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가을에는 선명한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잎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는 대나무 숲과 호코쿠지 절의 말차 카페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입구에서 본당 뒤편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모래와 돌만으로 자연의 풍경을 표현한 가레산스이와 연못이 있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면 길이 2 개로 나뉘는데, 여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 둉굴 식물로 뒤덮인 절벽을 바라보면 깊이 파여진 3 개의 동굴이 보입니다. 이 동굴은 야구라라고 불리는 묘지로, 무로마치 시대(1338~1573)에 일본을 통치했던 아시카가 가문의 주요 인물들 중 몇 명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금 지나온 갈림길까지 되돌아가 이번에는 대나무 숲으로 향합니다. 길가에는 이끼가 낀 불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돌길을 걷다 보면 말차 카페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말차를 드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말차 카페를 나와서 오른쪽 대나무 숲 속으로 난 길을 따라 돌계단을 내려가면 본당 정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들어왔던 대나무 숲 입구에서 밖으로 나간 후, 왼쪽에

보이는 길을 따라서 커다란 벚나무 옆을 지나 작은 돌계단을 내려가면 이끼 정원과 산문에 도착합니다. 돌계단 맨 아래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1층에서 좌선 수행 등을 하는 2층 건물 가쇼도가 보입니다. 돌길을 따라 산문 바로 앞에서 맨 처음 들어왔던 길로 걸어가면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